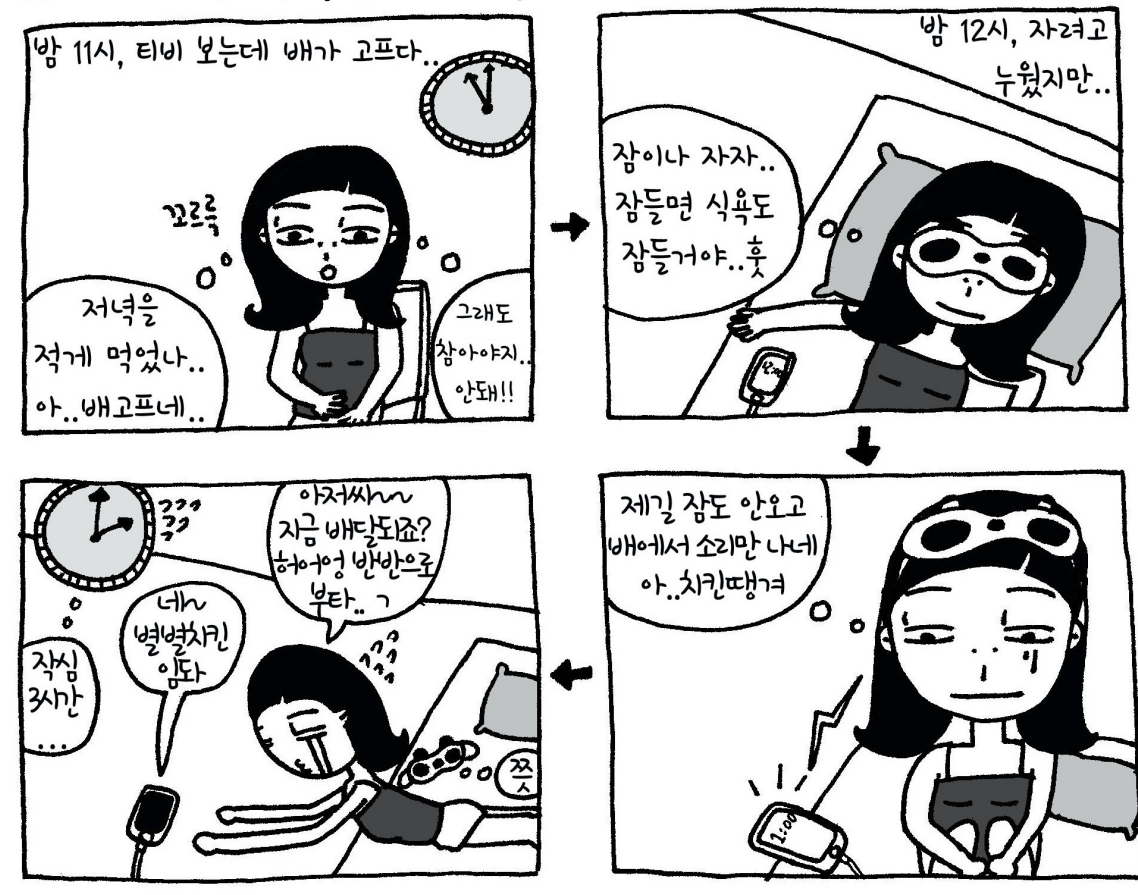


언니네이끼  
미용실에 한강이정예요

버레별툰  
By 공기

### 깊어가는 가을밤, 폭발하는 식욕.



별별신문  
2014년 9월 Sep.

13호

★★ news paper



| 발 행 일 자 | 2014년 9월 1일 월요일  
| 발 행 인 | 별별신문\_뿌.송.용.유나.숨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도우미,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망한  
망상

밀회  
사랑과 전정  
아니야

## JTBC 유나의 거리 - 독사충에 물린 미션편

★ 여기 한 여자가 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꽃뱀. 드라마 '유나의 거리'에서 유나의 룸메이트로 나오는 미션이다. 물주인 남자가 차려준 카페를 운영하는 미션은 다른 때는 설렁설렁하고 착해도 남자를 홀리는 재주가 남다르다. 늘 미션을 줄줄 쫓아다니며 목을 매는 유부남은 미션의 밀당에 애간장이 녹는다. 너무나 갖고 싶던 명품 시계를 선물해도 안 받겠다고 하며, 순정함(?)으로 승부하는 그녀, 다시 남자는 애걸복걸, 안절부절이다. 남자의 부인은 미션에게 다시는 안 만난다는 각서를 받고 돈을 준다. 그러던 어느날,

★ 호스트바에서 만난 조용하고 수줍어하는 듯한 연하남(민규)에게 서서히 빠져든다. 알콩달콩 데이트를 하다가 사랑앓이까지 가는 미션은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다"며, "밀회에서 김희애의 기분을 알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민규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민규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되레 화내고, 급기야 카드를 가져가서 다른 여자에게 명품백을 사준다. 이 남자 이상하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민규는 "등쳐먹은 유부남 숫자가 몇 명이나"며 미션을 만신창이가 되게 때리고 미션은 갈비뼈에 금이 간 채 입원한다. 하지만 미션은 아직도 이게 사랑이라 믿는다. 그 동안 민규에게 뜯긴 돈만 3800만원, **"꽃뱀이 독사한테 물렸네 ㅠ"**

★ 꽃뱀이라며 여자를 욕하는 얘기는 많지만, 민규 같이 비열한 남자 꽃뱀이 나온 것은 새롭다. 이런 남자애들은 업소에서 일하는 언니들한테도 잘 들러붙는다. 이런 종류의 남자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 말을 찾고 있는데 '독사'라는 표현도 너무 착하다. 蟲(벌레 충)을 붙여서 "독사충" 어떠한가. 언니들도 독사충 조심하세요~!! [숨]

## 유흥업소 서바이벌 가이드

Q 밀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A 제가 3년 동안 한 가게에서 일하고 나왔는데요, 임금이 밀렸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해 봐서 나쁠 건 없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 1.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 물론 매 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계약한 게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계약서가 없어도 직종과 관계없이 상담 받고 신고할 수 있고, 과정이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밀린 돈을 안 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에 가게 업주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요. 신고는 가게가 있는 지역의 노동청에 해도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2.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합니다.

★ 매 달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한 게 아니더라도 나는 거기에서 이미 일한 거잖아요. 그걸 입증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으로 이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했는지를 자세히 진술하거나 동료들과 함께 하거나 동료의 증언을 받거나 가게 업주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거나 장부가 있거나 등등으로 내가 그 가게에서 일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소송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면 성매매피해상담소로 연락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여성긴급전화 1366)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유흥업소에서 밀린 임금을 받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언니들, 돈도 안 주는 가게라면 빨리 그만두시는 게 속 편합니다. [유나]

? 일하면서 소문만 들었는데 이게 소문인지 진짜인지 궁금하다면, 질문주세요. (eloom2003@naver.com)

